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
 nmaum

법공양 페이지

모든 인연 둘 아니게 봐야 편히 살수 있어

15년에서 계속

굴에 찾아가 볼래도 모습이 있고는 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파리
 몸이 돼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본래 모습
 으로 남편을 보고 나올 때는 다시 파리
 가 돼서 나왔죠. 이렇게 살기도 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다르나, 지금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믿었다가 금방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믿었던 그 마음
 이 변하죠. 변할 때 그 지장이 얼마나 큰
 지 몰라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핏줄이
 이렇게 둘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
 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면 그 몸통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와 같이 믿었다
 안믿었다 하면 제대로 입력이 안되죠. 사
 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못 믿는 거죠. 그
 리고 큰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될 수가 없는 거
 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자기 생각에 그
 런 거지 딴 사람 생각이 그런 게 아니
 예. 그리고 부처님의 뜻에서 그런 게 아
 니고 자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
 각에서 그 간악한 마음이 나오는것은
 '너만이 간악한 마음이 안되게끔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관해서 그렇지 않게 해
 야죠.

이게 짝지 않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속
 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움쭉거리
 고 사니까 이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냥 이렇게 살아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
 는 건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조금도 예누리가
 없어.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전부 보물인 거야. 하다 못해 바
 람에 깔리는 모래도 전부 보배가 되는
 거지. 보배 아닌 게 하나도 없어.

- 어떻게 공부하지 말고
- 노래할때 노래하고
- 즐길때 즐기며
- 괴롭히지 말고 사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문제를 한번 생
 각해 보세요. 살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서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뽑아
 쓰지만 하거든요. 뽑아 쓰는데도 그 에너
 지를 어떻게 만들어야만 저장할 수 있
 고 우리가 내내 써도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는가 그것들을 모르는거야. 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야. 정신 세계를 모
 르고 물질 세계만 알기 때문에 물질로만
 보고 듣고 사니까 말이야.
 이게 참, 자기가 자기를 수련한다 이런
 것이 요만한 거 하나 하나가 전부 마음
 이예요. 마음, 사람을 사는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사람들이 다 모르고 미련해서
 쉽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실이 헝글어져
 집인환이 환이 나도 그거 하나를 제
 대로 풀지 못해. 그런데 그걸 풀려고 기
 도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정성 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풀어져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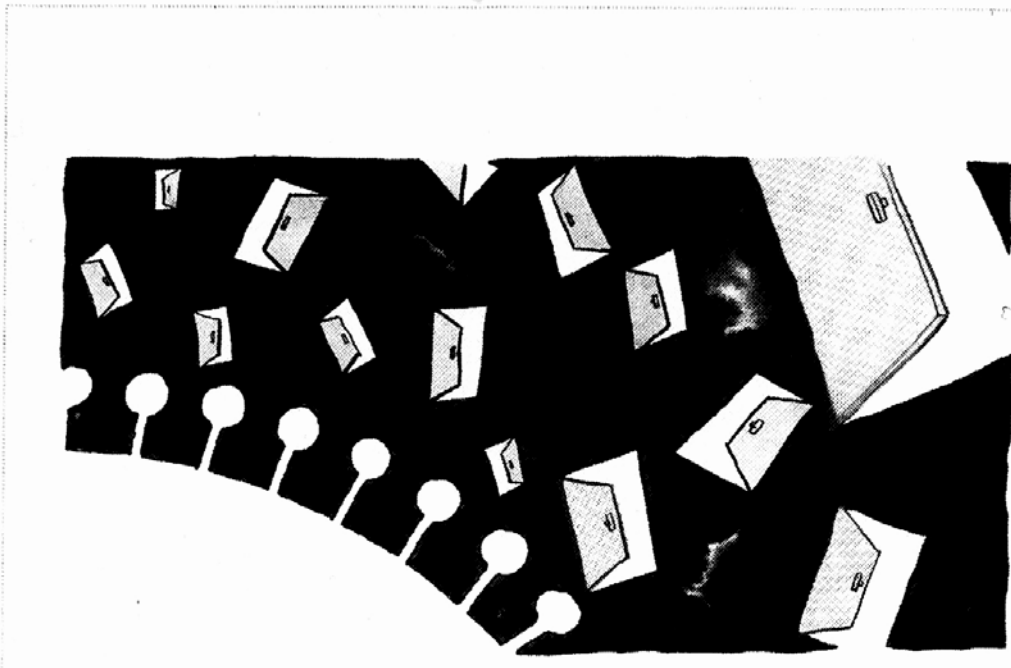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것이 퍼지죠? 그거와 같은 거니까. 이러
 게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쉽게 살지
 못하고 이 고리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니 모습을 바꿀 수가 없으니 참 안타
 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서
 가날 수 있다면 길을 가다가 좀 쉬고 가
 야겠다 하면 그대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쉬고, 좀 놀고 가야겠다 하면
 정원을 만들어서 놓고 가고 이렇게 자유
 스러운 거야. 그러니 무슨 먹고 산다 이
 런 것이 하나도 걱정 되는게 없어.
 그리고 사람 사는데 뭐 들어 나빠서
 병이 생긴다 이런 것도 생기지도 않고,
 모든 게 그냥 깨끗하니까. 그리고 에너지
 를 쓰면 에너지가 그대로 채워지고, 허공
 이 전부 에너지니까, 바람으로도 쓸 수

로 하고, 애로 하려면 애로 하고 늙은이
 로 하려면 늙은이로 하고 무엇이든 내
 맘대로 자유롭단 얘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하도 그냥
 집에서 부모들한테 틀북이고 그냥 가
 난하고 세상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서
 마는 막걸리를 싹껏 마시고는 집을 간
 다고 산동성이를 넣었어. 산동성이를 비
 틀거리고 넘어가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 그런데 어떤 노인이 나와서 하
 한 사람이 어딜 가나 그러구선 밥과 국
 을 갖다 주고 그래서 먹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가, 아무 것도 없고 노인들 담은 근
 사하게 생긴 비석만 있더라는 얘기가. 그
 러니까 그 비석이 그렇게 아니라 거기도

인제 다 죽게 됐는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쩌나 이러겠지만 그게 아닌거든. 늙은
 이 벌써 젊어서 나오는 게 가깝게 왔다
 이거거든. 우리 같은 사람은 모두 나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습이라도 나
 로 만들어놓고 나가 된다면 진짜 내가 또
 만들어놓고 나가 된다면 그게 일들은 저
 절로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인연을 받고 세세생생을 산다면 세세생
 생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지. 그걸 활활 털고 한번 가면 그대로 이
 건 사는 거 죽는 거 없이 살 수 있지 않
 냐 이거야. 그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진짜 인연을 만들기 위
 한 공장이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

우환 풀려면 기도대신 근본자리 놓아야 사는게 마음조화이니 마음을 잘 쓰세요

게? 믿는 그 마음이 한생각에 그냥 거
 다가 놓으면 풀려짐이 없이 풀려지는데
 이런 모습 있는 사람이 그걸 풀려나 안
 되지. 그건 모습 없는 부처가 보살이 풀
 어야 되지.
 그러나 각자 여러분이 앉았지만 여러
 분이 아니라면은 딴 사람이 나를 도와
 줄 리가 없다. 나의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도와지는 것
 뿐이다. 지금도 그 모습 하나 하나를 볼
 때 친밀한 사람이나 친밀해도 도와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본래 도와 줄 수
 가 없는 원인이 있죠. 모두가, 먹고 싸고
 잡자고 하는 것이 전부 도와지지 않아요.
 아프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다 도와 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이 많다 그런 거를 어떻게
 풀고 살 수 있을까. 쉽게 푸는 거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놈한테 다시 거
 기에다 놓아야 돼. 놓지 않으면 안풀어져
 그제.
 12대 20대 조상들로 인해서 유전이 되
 고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이 여간 많지
 않아요. 그것도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풀어지는 거야. 다 그리고
 좋게 살 수 있고, 좋게 떼내 재성이 되고
 다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
 을 못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여러분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탁 놓고 웃고 진짜로 믿는 사
 람은 믿는다는 생각이 없이 믿어지거든
 요. 그러면 우그러졌던 것이 그냥 퍼지
 지, 우그러졌던 것이 왜 저런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돌건이 변해서 찌그러졌던

있지.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
 는 없어. 내가 거짓 하는 걸로 알지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 아니 내가 마- 자기 뿌리가 자기한
 데 있는 건 사실이니까 믿고 그렇게 생
 활을 해봐라 이거야. 편리하게 살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거야.
 어떤 집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못
 살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하나
 하나 고통스럽게 사는 게 모두 관습이
 예. 어떤 집에 가니까 영계가 있어서 못
 살게 되고 쫓겨나간다 이러는데 사람이
 살아가지고 왜 죽는 사람한테 쫓겨나갔
 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틀로 보지 않
 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죽는 법은 없
 어요. 오히려 도와주지. 그래서 흥가집이
 라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죽어서 되
 나 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아주 잘
 되더라는 얘기가. 그것도 생각하기에 달
 린 거거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달렸
 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섬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아니면 보살행
 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보살행으로 들어
 가지 못하면 그런 차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부처의 도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아보면 세상에
 모습도 별 모습도 다 할래도 할 수 있
 고 이 모습도 필요없었다 그러면 이 모
 습으로 하고, 저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저 모습으로 하고, 또 남자로 하려
 면 남자로 하고 또 여자로 하려면 여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생각을 잘해봐 하니까 돈 한 꾸
 러미를 가지고 집에 와서 그 길로부터
 잘 살았다. 이 세상에는 그냥 거저도 없
 거니와 나무에도 돈이고 어디고 다 계시
 는 거지. 료에도 석신이 있고 나무에도
 목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써라 이거야. 마음을 나쁘게 쓰든 마음
 을 좋게 잘 쓰든 길을 지나가는 도중에
 그 마음을 보거든. 자기가 자기 마음
 을 보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되거든. 다 그
 걸 알게 돼. 그러기 때문에 나쁘게 될 일
 이 있어도 도와서 나쁘지 않게 되게끔
 하지.
 또 인연의 소치로 인해서 나쁜 인연이
 만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인연을 다 이
 려게 퍼서 악한 인연도 한데로 모으고,
 또 좋은 사람도 전자에 지어놓았던 인연
 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거든 다 퍼서 돌
 아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웅충하고 생각이 그렇게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생각이 그렇게 가면, 그러
 니까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그걸 모르
 니까 주인공이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서
 기다가 맡겨서 다보면 편안하잖아, 아주.
 걸음을 못 걸을까봐 애를 쓰지도 않고
 길을 잘 못 들까봐 애를 쓰지도 않을 거
 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야 할테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늙어서

고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이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생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말 하죠.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도 모
 르고 그 짜장면을 찾을 줄도 모른다. 그
 런데 전자에 먹어본 사람은 그 맛도 잘
 알고 지금 짜장면 맛도 알고 필요할 땐
 찾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은 아예 그 짜장면을 뭐야 하고 묻겠죠.
 이렇게 짜장면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을 보면 자기가 살아
 오던 습관대로, 이사 가는데도 뭘 보고
 뭘 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이유가 불어
 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 속에 다
 쌓여가지고 도무지 이전 신선할 수도 없
 고 쉽게 사는 도리를 도무지 모른다.
 중국에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
 느날 임종이 다가오자 딸 영조에게 밖에
 나가서 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한낱
 이 되거든 일러달라고 말했죠. 그랬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아버지를 밖에 나오게 만들고
 서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방거사도 따라서 가고 이 소식을 들은
 아들도 일어난 정기질을 멈추고 선 채로
 숨을 거두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가 갔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거짓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그 방거사는 누가 노비

를 얻으러 오면 노비 주지마라. 어디를
 걸러고 노비를 찾느냐 이거야. 항상 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노비를 어디다
 쓸려고 노비를 달래느냐 이거지. 우리가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지고 어두우면 전
 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 그런 거지.
 영화배우가 영화를 만들어도 진실처럼
 하죠. 진실로 하지 않으면 남이 봐주질
 않으니가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영화배우들 같거
 든. 자기가 갈 데가 있고 자기가 살 데가
 있고, 거기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알면 편
 안하게 그냥 살텐데 그게 아니니까 아등
 바등 하는 거 아니. 아쁘면 죽을까봐 걱
 정. 또 죽으면 아파법석들을 하잖아. 잘
 아는 사람은 죽었으면 아, 이 모습을 벗
 고 활활 털고 살리라 할텐데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있죠. 눈을 못 뜨는 어머니
 가 아들을 좇아가다가 개천에 빠져서 떠
 내리려는 걸 어머니는 그냥 두고 어머니
 만 모시고 갔다구요. 어머니 모습은 그냥
 두고 어머니만 모시고 갔다구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면 어머니로만 있는 것
 도 아니고 통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만 있
 는 것도 아니예요. 어느 거든지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꼭 이 모습이 돼야 저 상
 대방이 편안하겠다 한다면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때때로 모습들은 혹시 아파서
 죽든지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진짜 당
 신 에너지의 뿌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있으면 질문해요.
 오래 간만에 또 이렇게 만났으니,
 청년들: 다 답변해 주셨습니까. 스님께
 서요.
 스님: 그래, 지금 어떠한 지구가 돌아
 가든지 우주가 돌아가든지 그게 돌아가
 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한구멍에서
 나오지 두 구멍도 아니. 천차만별로 용도
 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군데서 나온단
 얘기가. 쓰는 사람들이 용도가 이래야 되
 겠다 하면 그 용도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면 못 믿는 게 되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네 발과 같다. 네 발에도 눈이 있고 그
 발도 천만 개가 될 수 있고 그 손도 천
 만 개가 될 수 있고 눈도 천만 개가 될 수
 있고 이게 말하는 그거를 헤아릴 수
 가 없다. 손도 그렇게 많고 늘어가는대로
 늘어가고 줄게 되면 줄고 그렇게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 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
 이 많다고 해서 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
 라 하늘천 하지. 그래서 이것이 전체에
 너무 많으니까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천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천이 아
 니고 아예 숫자 없는 것을 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숫자 없는 것을 천
 이라고 그랬다.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요
 발도 천이요.
 그러나 어려움에 이 공부를 할려고 하
 지 말고 편안하게 노래할 땐 노래하고 즐
 기고 놀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가정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또는 형제를 쉽게 살
 수 있도록, 또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거
 니가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
 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 한가정에 자기가 하나가
 된다 하면은 12대 종손이 아니라 13대 종
 손까지도 건져 낼 수 있던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부탁해요. 꼭 요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요다음에 만나게끔 말이에
 요. 우리가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깨우
 치게 됐나 하더라도 만남이 꼭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등골계 집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들 건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있지 말아
 요. 혼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
 분 몸속에도 다 자기 생명체들이 있어서
 보살이 된다는 것들요. 알았죠? 감사해요.

*위 법문은 1999년 12월 5일
 한마음선원 청년연합회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